

HRD 8월의 이슈

- 지역 고용시장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내게 딱 맞는 일자리, AI가 찾아줬다... 취업자 8.7만명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5년 상반기
'AI 일자리 매칭' 취업자
87,212명




2025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총상금
1,900만원



6월 고용시장, 월간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3.6%

Vol.113
August 2025

08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고용위기 선제 대응으로 지역 산업과 일자리의 안정적 기반을 다집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감소가 이미 확정적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었던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된 산업 고용이 3개월 이상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의 10% 이상을 조정하는 등

위기 신호가 나타나면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역은 요건과 수준을 달리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역 고용 여건과 일자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cover story

지역 고용안정의 등불이 되어
희망찬 미래를 밝혀나가겠습니다.

통 권 제113호

발행일 2025년 8월 20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052-714-8258

구독신청 및 문의 1stlee2@hrdkorea.or.kr kr

HRD 스페셜

04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0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HRD 현장

06 내게 딱 맞는 일자리, AI가 찾아줬다... 취업자 8.7만 명

07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08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0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09 우리 회사의 고용브랜드를 높이려면?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 도전하세요

10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2 대화로 싹트는 진짜 성장, 인천 석유화학업 상생의 미래

13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16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17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독일 고용서비스 정책 현장을 누비다

18 인공지능(AI), 전기차,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새로운 직업들, 한국직업사전 신규 등재

고용 BRIEF

20 2025년 6월 고용동향 분석

연구 INSIDE

20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1 산업계 주도의 직무변화 모니터링 컨설팅 연구

21 ICT 전문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전망(2024) 통계보고서

기관 LINK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23 2026년 신규자격증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히 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1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p 저조

2 피보험자 수 5% 감소

3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20% 증가

4 사업장 수 5% 감소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 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1 재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2 주된산업: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3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불안,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휴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시간



내게 딱 맞는 일자리, AI가 찾아줬다 ... 취업자 8.7만 명



2025년 7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내게 딱 맞는 일자리, AI가 찾아줬다 ... 취업자 8.7만 명**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년 상반기 'AI 일자리 매칭' 취업자 87,212명,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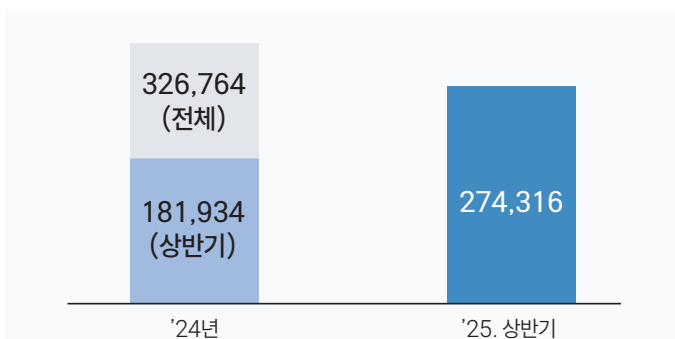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실제 취업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AI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많은 공고를 일일이 살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주면서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87,212명으로 전년 동기(4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취득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케어 서비스 보고서 생성 건수



앞으로 더 똑똑해지는 AI 취업 도우미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구인·구직자를 위한 4종의 신규 AI 기반 서비스를 고용24에 추가할 예정이다.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분석해 주는 '취업확률모델',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만 콕 집어서 제시하는 'AI 직업훈련 추천',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기업의 채용공고를 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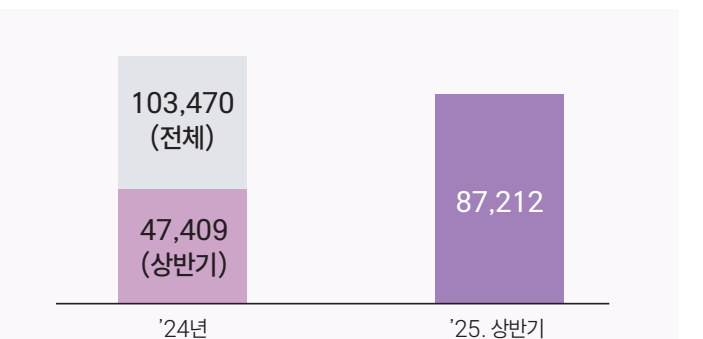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유명하지 않는데...” AI가 인재 연결

서비스의 효과는 실제 구직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여성 G 씨는 “AI가 예상치 못한 안전컨설팅 직무를 추천해줘서 도전했고, 곧바로 입사까지 연결됐다”라며 “제 전공을 살려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채용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중소기업 L 사는 “우리 회사처럼 인지도가 낮은 곳도 AI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연결받아 채용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중소기업에는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잡케어”는 진로상담 도우미... 청년층 활용 급증

이와 함께 진로탐색, 직업선택,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잡케어는 구직자의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AI가 분석해 진로 로드맵, 적합직무, 훈련추천 등을 제공하는 진로상담 도우미로, 특히 청년층의 호응이 컸다. 올해 상반기 잡케어 보고서 생성 건수는 274,316건으로 지난해 같

AI 일자리 매칭 이용 취업자수



생성해주는 '구인공고 AI 작성지원'이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구직자와 기업은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5년 8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직무능력은행 활용·확산을 위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의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3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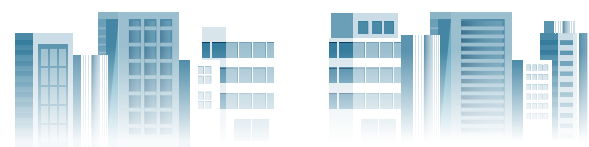
공단은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대국민 사업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확산을 위해 공모전 수상작을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직무능력은행을 취업 및 자기계발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교육, 채용, 인사관리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단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수기 형식으로 직무능력은행 활용 계기, 활용 분야 및 방법, 성과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심사는 개인과 단체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과 공단 이사장상(우수 및 장려)이 수여되고, 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가대상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본 개인 및 단체 등
개인 | 직무능력은행을 자기계발 및 취업 등에 활용 경험이 있는 개인
단체 | 직무능력은행을 교육, 인사관리, 채용 등에 활용 경험이 있는 단체
 ※ 교육기관, 공공기관, 훈련기관, 기업, 협회 등

신청방법 공모전 작성양식에 따라 **A4 2매 이상 4매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작성양식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https://bank.ncs.go.kr>) 고객센터·공시사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공시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전자우편(ncs@hrdkorea.or.kr)을 통해 제출(우편접수 불가)

필라발표 및 홍보 '25. 9월 중 직무능력은행 누리집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 홈페이지 공시사항 게시(입상자 개별 통지)

문의처 직무능력기획부 052-714-8776 <https://bank.ncs.go.kr>

포상내역 총 15점 (개인부문 9점, 단체부문 6점)

직종수	개인부문		단체부문		비고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	참가 15점	
최우수 1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 3점	30만원	10만원	50만원	1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장려 5점	10만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 포상 규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 교육, 훈련, 경력)을 저축·통합·관리하여 취업·인사관리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인)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
(단체)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3점



접수기간은 8월 4일(월)부터 8월 29(금)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https://bank.ncs.go.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ncs@hrdkor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2025년 8월 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개선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었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었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

이어지는 대사 간담회에서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송출국의 다양한 현안과 의견을 듣고, 협력방안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신 노동자와 기업에 감사드리며, 외국인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고충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과 포용의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년 1월 취업 청년, 당초에는 '26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 수령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기존) 근속 18·24개월차 지급 → (변경) 6·12·18·24개월차 지급(480만원 총액은 동일)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되었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 //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 I, 유형 //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I 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 //는 빈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되었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된다.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의 고용브랜드를 높이려면?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 도전하세요



2025년 8월 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우리 회사의 고용브랜드를 높이려면?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 도전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기업·공공기관 모집(8.4.~9.5.)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하여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공정채용 사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정채용이란?** 채용의 전 과정에서 ①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②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여 ③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의미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와 2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 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17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공모 및 심사를 거쳐 기업 12개소, 공공기관 10개소를 선정하여 각 중앙부처 장관상 및 경제단체 회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수상한 기업에 온·오프라인 인증패와 함께 인사담당자 상금 수여 및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수상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상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주)텍스터크레마(고용노동부 장관상)는 이력서에 나이, 학력과 같은 지원자의 비분질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직무적합 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이력서와 면접을 도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기획재정부 장관상)는 모든 입사지원자에게 필기 전형 기회를 부여하고, 피드백 전달 전문위원을 통해 면접 불합격자에게 상세한 피드백과 면접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향후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에서의 불공정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절차법 정비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우수기업 지원을 통해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2025년 7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5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 7월 10일(목)부터 9월 21일(일) 24:00(한국시간 기준)까지 접수
- 해외진출 도전 계기와 과정, 현지에서의 성장 경험을 담은 이야기 및 해외 경험을 살린 국내 취업 우수사례를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해외진출을 경험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기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1,900만 원 규모로 오는 9월 21일(일)까지 접수한다.
※ 공모전 접수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내 공모전 페이지에서 진행됨

공단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공단이 제공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또는 해외일경험(WELL)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기 및 영상이며 △K-무브스쿨 취업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WELL)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스토리, 귀국 후 국내 취업까지의 여정을 담아 응모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7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과 함께 총 1,9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응모작은 향후 청년 해외진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활용 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수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씨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WELL)을 통해 미국 환경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경험을 발판으로 ‘UNDP 방콕지역 사무소 환경팀’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생생히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ORLDJOB+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2025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접수 기간
2025년 7월 10일(목) ~ 9월 21일(일) 24:00 (한국시간 기준)

지원 자격 및 대상
최근 5년 내(2021년~2025년) 해외진출 경험자
· K-Move 스쿨 수료 후 해외취업자
·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경험자
· 해외일경험(WELL) 참여자

공모 주제
해외진출 도전 계기와 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경험을 담은 이야기 및 해외 취업 경험을 살린 국내 취업 우수 사례 등

출품 분야 및 규격
수기, 영상

구분	종류 및 규격	형식
수기	수필 분량 : 글자수 기준 4,000자 내외 관련 이미지 : 3장 이상	docx, hwp
영상	비로그 · 분량 : 분량 미달 및 저화질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 분량 : 2분~5분 이내 형태 : 1,920×1,080px (FHD)	mp4, avi, wmv 등

*본인이 제작한 순수 창작물로만 출품이 가능하며, 타 채널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시상 내역
총 27작품, 상금 1,900만 원

전형	해외취업 <K-Move스쿨 수료>	해외취업 <일반>	해외일경험 (WELL)	비고
대상	200만원 (1명)	200만원 (2명)	200만원 (1명)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	100만원 (2명)	100만원 (2명)	100만원 (1명)	
우수상	50만원 (4명)	50만원 (2명)	50만원 (2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장려상	20만원 (4명)	20만원 (3명)	20만원 (3명)	

*접수 건수 및 작품 수준에 따라 수상 내역은 가감될 수 있으며, 동일인이 다수 부문 중복 선정 시 선정 등급이 높은 1건만 시상
*해외취업 <일반> : 해외정착지원금, 공공 알선, 멘토링, 국내취업지원사업 참여, 해외취업 복귀 후 국내 취업 등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경험자 대상

공모 방법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제출
(www.worldjob.or.kr)
*영상 작품의 경우, 용량 문제 발생 시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별도 접수

운영사무국
운영 시간 : 평일 10:00~17:00 (한국시간 기준)
☎ +82-070-8657-1137
✉ job@ariacomms.kr
☎ 카카오톡 오픈채팅 [2025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대화로 싹트는 진짜 성장, 인천 석유화학업 상생의 미래



2025년 8월 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대화로 싹트는 진짜 성장, 인천 석유화학업 상생의 미래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도형 상생협력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인력 확보 등에 중점

8월 6일(수) SK인천석유화학(주) 본사에서 인천-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노상규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양상규 SK인천석유화학(주) 노동조합 위원장 및 협력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역 구인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원하청의 공동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다. SK인천석유화학(주)은 일찍부터 기본급의 1%를 '1% 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협력사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먼저 원청은 협력사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전문 안전감시자(safety key man)와 소통하여 현장 위험을 관리하고, 10개 협력사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돕는다. 또 협력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 협력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쾌적한 휴식을 위해 힘쓴다.

이에 맞추어 지방·중앙정부는 협력사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한다. 신규 고용창출 시 환경개선지원금을 협력사에 지원하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복지포인트 지급, 문화 행사 지원 등 복리후생 증진에도 힘을 모은다.



- * ▲ (협력사 대상) 협력사 내 신규 고용창출 시 채용인원에 따라 최대 6,000만원 지원
- ▲ (근로자 대상) 신규자 고용유지 지원금(4개월마다 200만원, 최대 400만원)
- 재직자 장기근속 지원금(4개월마다 100만원, 최대 200만원)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소통과 타협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대화촉진법이자 격차해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인천석유화학(주) 근로자들은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건강한 원하청 관계의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수평적 리더십과 현장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통한 건강한 원하청 관계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며, “노사 상생협력의 문화가 업종, 지역을 넘어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5년 7월 31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반도체(증가), 섬유(감소),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유지 (-1.0%)	유지 (1.4%)	유지 (-0.7%)	감소 (-2.9%)	유지 (-1.0%)	증가 (2.7%)	유지 (0.1%)	유지 (-0.2%)	유지 (-0.6%)	유지 (0.8%)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수요 부진 등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의 연간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진한 건설 및 제조업 경기 영향으로 2025년 하반기 내수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요산업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증가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하반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수출 증가세 완화와 함께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2025년 5월 말 국내 조선소 수주 잔량은 3,571만 CGT로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국내 조선소는 약 3~4년 치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 2025년 1~5월,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516만 CGT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선박류 수출은 26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하반기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IT 제품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국내 IT 신제품 출시, 전자기 판매 개선 등의 효과로 2025년 하반기 정보통신기기와 이차전지의 내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부가 반도체 제품 비중 증가 등 IT 신산업군 수출은 2025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대외환경 불확실성, 해외 생산 확대 등은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IT 제품 수요 개선으로 내수 반등이 기대되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위축으로 2025년 하반기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고기능성 소재 증설분 본격 가동으로 생산 확대가 기대되나 미국 관세부과로 인해 기존 공급망이 급변한다면 국내 생산과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직물, 염색·가공 등의 연쇄적 생산 및 수출 부진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 증가로 국내 생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5 철강 수출 여건 악화에도 내수가 소폭 반등하여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기대로 2025년 하반기 내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산 철강의 아세안 유입 확대, 미국 관세 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로 2025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 부진 및 수출 여건 악화로 생산량은 감소하나 내수 회복 기대로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6 반도체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반도체 시장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기 속에서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1,5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첨단공정 중심의 설비투자 증대로 2025년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7 자동차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은 내수와 생산이 유지 또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수출이 축소되어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제약으로 신차 구매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관세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판매량 유지 기대와 신모델 출시 효과 등의 영향으로 생산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디스플레이 고부가가치 분야인 OLED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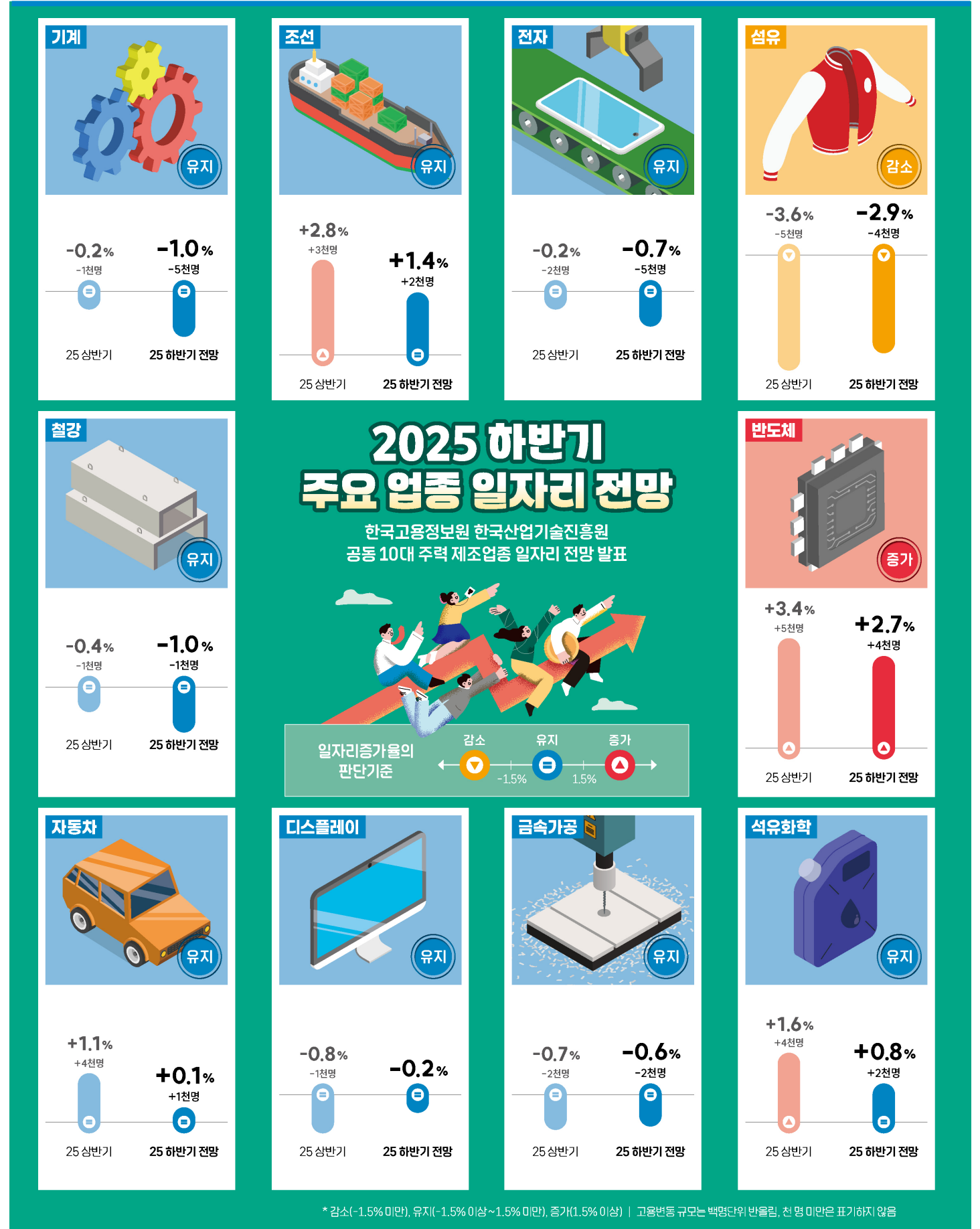
- AI 기능 본격화, IT·자동차 OLED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OLED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OLED 고부가가치 채택 확대와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OLED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LCD 부분도 2026년 상반기 개최될 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0.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9 금속가공 건설업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로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 수요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건설 및 제조업 둔화로 2025년 하반기 내수 시장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은 2025년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10 석유화학 석유화학 업황 불황에도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불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공급과잉 및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에도 글로벌 수요 회복 가능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고용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8%(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고용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2025년 8월 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7일(목)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 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후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

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등을 상시 밀착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 특공대로서 국민들께서 일터가 전보다 더 안전해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 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밀착관리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산업 안전감독관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위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오늘 산업안전감독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상시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독일 고용서비스 정책 현장을 누비다



2025년 8월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독일 고용서비스 정책 현장을 누비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업무협약 기반으로 독일 고용서비스 대학(HdBA)·고용서비스 기관 탐방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고용서비스 선진국 독일의 정책 현장 탐방을 통해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만하임 및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스터디 투어는 독일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기관인 독일연방고용공단대학교(Hochschul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이하 ‘HdBA’)의 독일 고용서비스 기관을 방문,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운영 체계와 정책을 체험하고 양국 대학 간 지속적인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탐방은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와 HdBA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023년 독일 HdBA의 한국 방문, 2024년 한국기술교육대의 독일 방문에 이어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금창민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를 비롯해 테크노인력 개발전문대학원생과 학부생(고용서비스정책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등) 9명으로 구성되어, 4일 HdBA 견학을 시작으로 5일에는 독일의 대표 고용서비스 기관인 만하임 고용청(Employment Agency)과 민간기업(ad laborem)을 탐방했다. 이어 노이슈타트 취업상담소(Job

Centre in Neustadt), 오펜바흐 지자체 고용센터 등 총 5개 기관을 방문했다.

독일 HdBA 대학 에드제이치(Prof. Dr. Paulina Jedrzejczyk) 교수는 “한국기술교육대와 HdBA 두 대학의 친밀한 관계가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 방문에서도 두 대학의 학생들 간에 생동감 있는 교류와 토론이 참 보기 좋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연수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육철학을 국제무대에서 실현하는 의미 있는 탐방”이라며, “독일의 고용서비스 선진사례를 체험한 학생들이 장차 한국 고용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고용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번 스터디투어를 통해 △독일 고용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 이해, △국제적 협력 기반 확대, △참여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국제 현장 경험을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금창민 교수와 학생들이 2일부터 10일까지 독일 고용서비스대학(HdBA)와 고용서비스 기관 현지 탐방에 참여했다.

인공지능(AI), 전기차,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새로운 직업들, 한국직업사전 신규 등재



2025년 7월 30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공지능(AI), 전기차,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새로운 직업들, 한국직업사전 신규 등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소운영관리자,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AI서비스운영관리자, 고객경험(CX)매니저 등 『한국직업사전』에 신규직업 등재 발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 '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 (신규 직업) 한국직업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직업으로 직업세계 변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신생 직업과 이미 태동했으나 새롭게 조사된 직업을 말함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3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등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총 1,081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전문가 검토 및 구인 자료 확인)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확산, 탄소중립·안전 등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며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장 형성과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전력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실천 및 안전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전기차충전서비스직,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전력수요관리중개자, 탄소포집저장운송전환기술자 등 새로운 직업이 태동·성장하고 있다.

* 전기차충전서비스직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정비·유지관리부터 충전소 플랫폼 및 충전소의 운영관리 등의 서비스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

생성형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기반제어 등 디지털 전환(DX)을 견인하는 디지털 신기술이 각 산업에 접목·확산하면서 연구개발직군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자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 등 모든 조직 영역에 통합하여 고객서비스 방식 등 혁신을 꾀하는 경영전략

새로운 직업 외에도 기존 직업이 진화하는 형태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교통공학기술자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목적을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ITS) 서비스와 교통시스템을 설계하는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 기술을 결합하여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과 보행자(V2P) 간에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통해 교통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협력적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 항공시스템인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인증기술자를 비롯하여 고객경험매니저(CX매니저), 의학물리사 등 조사대상 외 신규 직업도 함께 조사·등재했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직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관리 직업,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가치 평가 관련 직업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진보로 직업의 생애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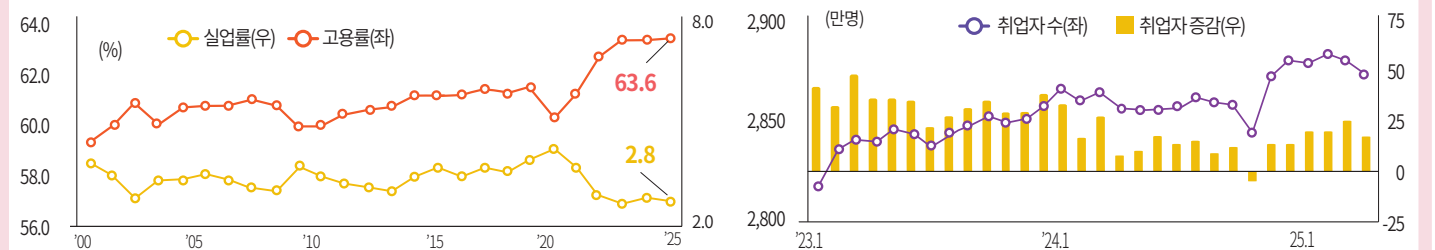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2025. 7. 16.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6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률(63.6%) · 경제활동참가율(65.4%)은 월간 역대 1위, 실업률(2.8%) 취업자수 +18.3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63.6%)로 전년대비 상승, 15~64세 고용률(70.3%, +0.4%p) 역대 1위

- 경제활동참가율(65.4%, +0.1%p) 역대 1위
- 실업률(2.8%)은 하락(△0.1%p)하여 6월 기준 역대 최저 2위
- 취업자수 전년대비 +18.3만명 증가,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6.4만명 감소

⇒ 15세 이상 고용률 · 실업률(원계열, 매년 6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대비)



- (산업) 서비스업 증가 지속, 건설업 감소폭 축소, 제조업·농림어업 감소폭 확대
 - 서비스 52개월 연속 증가 지속, 증가폭은 축소(+54.9 → +49.4만명)
 - 보건복지(+21.6만명)·전문과학(+10.2만명) · 금융보험(+5.4만명) 등 증가폭 축소
 - 교육서비스(+7.2만명) · 협회단체(+2.5만명) 등 증가폭 확대, 부동산(△0.5→0.6만명)은 증가 전환
 - 도소매(+1.0만명)는 '24년 이후 부진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소비심리 개선으로 2개월 연속 증가
 - 숙박음식(△3.8만명)도 전월대비 감소폭 축소
 - 제조 내수관련 제조업(섬유·종이 등)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폭 확대(△6.7→△8.3만명)
 - 건설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흐름 등으로 감소폭 축소(△10.6→△9.7만명)
 - 농림 집중호우 영향 등으로 감소폭 확대(△13.5→△14.1만명)
- (지위·연령) 상용직 57.5%(+0.7%p), 3~40대 · 고령층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축소(+31.8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고용·고용)·무급가족종사자 모두 감소
 - 연령 30대·4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청년층·50대는 감소
 - 청년층 고용률(45.6%, △1.0%p) 하락, 실업률(6.1%, △0.1%p) 하락
 - 청년층 쉬었음(40.8만명, △1.8만명)은 2개월 연속 감소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50대는 인구감소 대비 취업자수 큰 폭 감소하며 고용률 하락, 60세 이상은 직접일자리 사업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
- (평가대응) 취업자수가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경황률·고용률 상반기 역대 1위, 다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업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
 - 상반기 취업자수는 18.1만명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수는 당초 전망치(12만명, '25.1월 연간 경제정책방향)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은 직접일자리사업 효과 축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공공행정·보건 복지·전문과학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정보통신·금융보험·전문과학 등이 구조적 증가세 보이는 만큼, 하반기에도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 견인 전망
 -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의 고용 감소세 지속
 - 제조업은 일평균 수출 증가(6.8%, 상호관세 유예종료 전 선수요 영향) 등이 상방요인이나, 상호관세 부과(8.1) 등 향후 리스크가 큰 상황
 - 건설업은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건설수주('23.4분기 이후 개선) 등 선행지표 흐름에 따른 하반기 회복요인 상존
 - 농림어업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둔화 지속되면서, 최근은 이상기후(4월 한파, 6월 폭우 등)가 추가적 하방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 쉬었음 감소(△1.8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내수 활성화 및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역력 강화,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안정 위한 핵심과제 지속 발굴

- 고용상황과 일자리 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민간과의 소통 활성화
-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31.8조원) 사업*을 신속 집행하고, 對美 협상 및 기업 피해 최소화 등 통상리스크 대응 노력 지속
 - * 민생회복소비쿠폰(15.1조원), 지역사랑상품권(0.6조원), SOC 조기 착·준공 지원(1.4조원) 등
-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역력 확대 추진
-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안정 위해 AI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직업훈련·일경험 등) 확대 등 과제 발굴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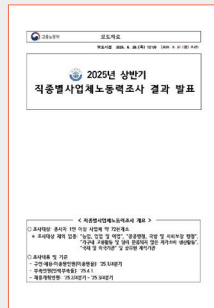


주요내용

- 산업, 직종, 규모별 구인-채용 및 미충원인원 현황과 사유
- 산업, 직종, 규모별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과 인력부족 해소 노력

주요목차

-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
- 부족인원(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 [통계표] 주요 항목별 동향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 12월 연구자: 김수현, 이시균, 박진희, 박세정, 방글, 노대영, 송지영, 고상원, 반가운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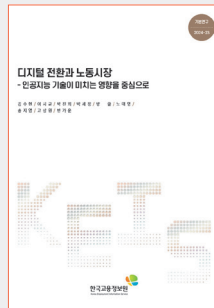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국내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정책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생산과 생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

주요목차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양상과 핵심 활용 영역
-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과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 인공지능 기술 변화와 고용효과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 분석
- 인공지능 기술이 주요 업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정책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서비스정책 방향



산업계 주도의 직무변화 모니터링 컨설팅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12월 연구자: 이승봉, 문한나, 전재식, 백원영, 김유미, 박상오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산업계 주도의 직무변화 모니터링 컨설팅 연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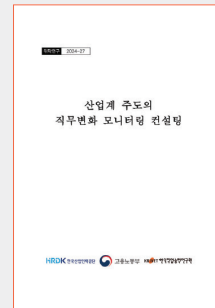


주요내용

- 한국 자동차산업의 직업 및 직무변화 양상 확인, ISC가 수행할 직무변화 모니터링의 방향성 제시
- ISC 사무국 실태분석을 통해 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기업 집단 범주화, 가시적인 성과 도출
- 산업 생태계 분석-직무 선정-정성 모니터링-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단계 제시
- ISC 사무국의 유형화 기반 컨설팅의 목표와 체계, 방법 등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 수립·실행

주요목차

- 한국 자동차산업의 직업 및 직무변화 양상
- 직무변화 모니터링 컨설팅 실행
- 직무변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 컨설팅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ICT 전문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전망 (2024) 통계보고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년 12월 연구자: 홍광표, 이상돈, 이상준, 황성수, 김민경, 유명환, 황인영, 윤여인, 손희전, 황승록, 설귀환, 김윤아, 박라인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ICT 전문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전망(2024) 통계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수요) 기업일반과 고용, ICT 전문인력의 채용 실태, 외국인 ICT 전문인력 채용 현황과 선호도, ICT 기술분류별 인력현황 조사
- (공급) 일, 구직,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자격증, 이직 의사에 관한 사항, ICT R&D 기술분류에 따른 담당 업무 조사
- ICT 전문인력 수급자 전망의 기초자료 구축과 ICT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방안 모색

주요목차

- ICT 전문인력 수급 실태조사 연혁과 통계신뢰도 제고
- ICT 전문인력 공급 실태조사
- ICT 전문인력 수요 실태조사





7.7~8.10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8.4~9.5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참가기업 접수

8.6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7.10.~9.21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

8.4.~8.29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



7.1.~12.3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5년 직업훈련 혁신 온라인 기초컨설팅 운영 안내

8.27~9.9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5년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선정심사 계획 공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8.27~9.9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 신청-접수

8.26.~9.4 원격훈련과정심사(4차) 신청-접수

8.1.~8.8 훈련이수자평가(9차) 신청-접수

8.25.~8.29 프로젝트 평가(10월) 신청-접수

7.1~12.31 온라인 기초컨설팅 운영



7.14~9.12 제6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7.23~8.20 2025 고용24 활용 수기·영상 공모전

8.1 「고용동향브리프」 2025년 5호 발간

8.1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8.1~8.12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방문 인증 이벤트「용용이를 찾아라!」

8.1~8.24 온통청년 청년정책 댓글 이벤트

8.22 2차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포럼 개최

8월 말~9월 초 예정 충북 청년 취업지원 캠프



7.8~7.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워크숍(2차)

7.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제91차 HRD 정책포럼)「AI시대, 인재의 조건과 정책을 다시 묻다」

7.15 기본과제<지역인재정책과 중등직업교육 협력체계개선> 호남권 포럼

7.15~7.16 협약형 특성화고 관계자 워크숍

7.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식

8.6 협약형 특성화고 모니터링단 워크숍

8.26 2025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하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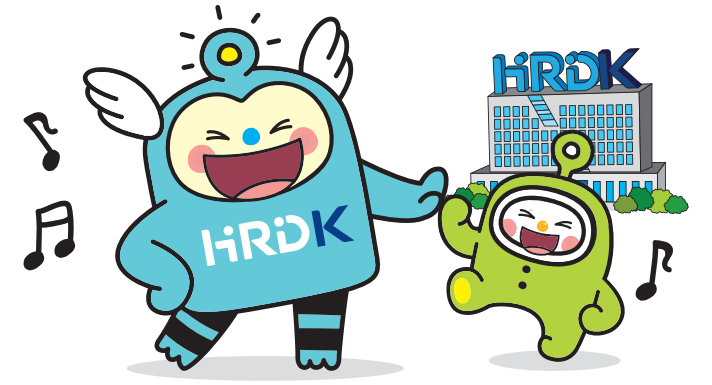
8.27 제3차 직업능력개발포럼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즘 난리난 자격증

2026

신규 자격증!



요즘 난리난 자격증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요즘 난리난 자격증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요즘 난리난 자격증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p>신입현장에서 주목하는</p> <h2>2026</h2> <h1>신규 자격증!</h1>	<p>01</p> <h3>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h3> <p>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p> <p>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험과목: - 필기시험: 이륜자동차 엔진, 전기장치, 배기, 동력전달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오토바이 - 실기시험: 이륜자동차정비 실무</p>	<p>02</p> <h3>바이오공정기능사</h3> <p>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이며,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신규 인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자격시험을 도입하여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예정입니다.</p> <p>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험과목: - 필기시험: 바이오 생산 및 품질관리 기초 - 실기시험: 바이오 생산 및 품질관리 실무</p>	<p>03</p> <h3>스마트공장산업기사</h3> <p>IoT기반의 제어장치,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제조데이터를 네트워킹하고, AI를 활용한 공정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운용시스템의 설계, 구축, 관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p> <p>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험과목: - 필기시험: ① 자동제어 ② 네트워크 일반 ③ 스마트공장 시스템 - 실기시험: 스마트공장 구축 실무</p>	<p>04</p> <h3>스마트공장기능사</h3> <p>IoT기반의 제어장치,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제조데이터를 네트워킹하고, AI를 활용한 공정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운용시스템의 설계, 구축, 관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p> <p>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험과목: - 필기시험: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 실기시험: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실무</p>	<p>05</p> <h3>산림기능장</h3> <p>산림작업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계획·시행, 재해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지도업무,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교육·훈련 등의 작업시스템 및 작업공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p> <p>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험과목: - 필기시험: 산림조성, 목재수확, 산지복구, 산림보호 및 안전관리 - 실기시험: 산림작업 실무</p>

2025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접수기간
8.4 / 월
9.5 / 금
18:00



모집 대상

2025년까지 공정채용을 실천한 모든 기업·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적유관단체 등]

제출 내용

PPT 5~20장 이내 분량으로 자유제출

접수 방법

[전자결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E-mail] clover564@hrdkorea.or.kr
(제출파일명) 기업·기관명_공정채용 어워즈(응모부문)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직무능력활용부
☎ 052-714-8681

수상 혜택

공공부문(포상 10점)

-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 인사혁신처 처장상(각 2점)

민간부문(포상 12점)

- ◆ 고용노동부 장관상(6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2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2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2점)

기타 혜택

- ◆ 공정채용 우수기업 인증패(온라인 인증패 포함) 지급
- ◆ **민간부문 수상기업(인사담당자, 팀) 상금 200만원 지급**
- ◆ '26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심사 우대
- ◆ '26년 일터혁신 컨설팅 선정심사 우대
- ◆ '26년 공정채용 지원사업 우선지원
- ◆ BEST-HRD 인증 선정심사 시 가점